

### 3.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

- (주요 내용) 정경 분리 원칙의 견지 하에 인간의 자율성 확대
  - 경협의 대상 및 투자 상한선 확대, 규제 완화, 대기업 총수의 방북 허용 등
- (평가) 대북 정책의 일관성·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협 활성화 정책 의지 표명
  - 북한을 '화해와 협력의 장'으로 유도하기 위한 신정부의 '햇빛 정책'의 반영
- (경협 전망) 경협을 위한 접촉은 확대될 것이나 본격적인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
  - 제도적 장치 및 북한내 SOC 시설의 미비, 외환 위기로 인한 남한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 확대에는 다소 시간 필요
- (기업 대응) 수익성 중심의 공동 사업 개발, 관광 교류 및 수송망 체계 구축 사업 추진, 농업 부문의 합작 투자 모색, 문화 사업 등

#### ○ 주요 내용

- (개요)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는 정경 분리 원칙 下의 대북경협 활성화 조치 결정
  - 통일부 및 경제 관련 장관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, 조만간 발표할 예정(1998. 3. 26. 일간지)
-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간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
  - 위탁가공 기계 장치 설비의 반출 규모 확대(현재는 1회 100만 달러, 연간 300만 달러 초과시 승인 필요)
  - 대폭적인 규제 완화(Positive list 방식 → Negative list 방식)
  - 투자 범위 및 규모 상한선 확대(500만 달러 이내 경공업 중심의 시범적 사업 → 일부 방위 산업과 중공업 등 전략 물자를 제외한 전 분야)
  - 대기업 총수의 방북 허용 및 허가 절차 간소화 등

#### ○ 평가

- 대통령직 인수위의 100대 과제중 통일 부문 내용과 비슷하나,
- 세부 주제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및 정책 추진 의지의 재확인에 큰 의미
  - 이산가족 재회와 경협 활성화 조치 등 비정치적이고 실천이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일관된 정책 의지 반영
  -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과시
- 성과없이 끝난 4자회담에 대해 신정부의 적극적인 '북한 끌어안기' 일면도 엿보임
  - 북한을 '화해와 협력의 장'으로 유도하기 위한 신정부의 '햇빛 정책'을 반영
  - 경협 확대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대화 채널 확보 노력

#### ○ 남북 경협 전망

- 실향 기업인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한 접촉이 활발해질 전망

- 임가공의 시설재 반출 제한 확대로 임가공 사업 규모 확대 및 활성화 전망
- 북한도 남한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
  - 투자 지역 확대(나진·선봉→남포, 원산), 기술자들의 신변 안전 보장 조치 등
  - 특히 실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관광객의 방북 허용 등
  - 남한 정부에 대한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 경협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(사회안전부의 '주소안내소' 설치, 차관급 회담 제의 등)
- 임가공과 관광 교류 및 개발 사업, 의약·농업 분야의 경협이 활성화될 전망
  - 大象하이디어(주)는 나선 지역 2만 평에 인공 씨감자(40만 개)를 공급하여 합작 농장을 시범 운영후 99년에 30만 평, 2000년에 300만 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
- (한계) 제도적 장치 미비 및 남한의 경제 위기로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  - (북한) 투자 보장 협정과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미체결, 북한내 산업 기반 시설의 미비 및 투자 지역의 제한 등으로 본격적 투자 활성화는 기대 곤란
  - (남한) 경제 위기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남한 기업의 투자 여력 약화 및 수익성 위주로의 투자 방식 변화 등

### ○ 기업의 대응

- 경제성 중심의 다양한 사업 개발
  - 수익성과 경제성을 무시한 경쟁적 진출보다는 기업 규모별, 사업별, 업종별로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 다양한 경협 사업 방안을 개발
- 북한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(농업, 관광) 중심으로 경협 방안 모색
  - 식량 증산을 위한 농업 기자재, 비료, 농약, 농업 기술과 종자 공급 추진 등
  - 협동 농장 개발과 영농 합작, 위탁 영농, 화학 비료 및 농약 공장 건설 등(비료값은 옥수수값의 1/3 수준이며, 비료 10만 톤 지원시 옥수수 70만 톤 증산 효과 기대 ; 「동아일보」, 1998. 4. 1.)
- 이산가족 재회 사업과 연계한 관광 교류 및 수송망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
  - 북한은 이산가족 재회 및 관광 개발 사업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중임
  - 남한 정부도 이산가족 재회 업무를 '남북협력사업'으로 지정, 활성화할 방침
  - 나선 지대 및 주요 명승지를 이산가족 재회 사업과 연계, 개발하여 본격적인 관광 사업화(관광 교류 및 호텔 건설·운영 등)에 대비
  - 관광객 및 물자 수송을 위한 교통망과 통신망 사업 등을 추진
- 문화 사업 분야로 경협 사업을 확대 추진
  - 북한의 주요 문화재의 남한내 전시 사업 및 문화 유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
  - 광고 및 영상 제작 사업 등 추진

(홍 순 직 sjhong@hri.co.kr ☎724-4051)